

# 아이들이 직접 연주하는 '희망의 하모니'

고창 꿈의 오케스트라 창단 2년째  
초·중·고 12개 학교 65명 구성  
매주 월·수 두 차례 걸쳐 연습 진행  
전문 음악인 꿈 키우는 아이들도 있어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고창문화원 강당에 활기가 넘친다. 강당에 웅기종기 모여 앉은 아이들은 지휘자의 손짓에 따라 하나, 둘 박자를 맞추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완성해 나간다.

지난 1일 찾은 고창문화원. 고창 꿈의 오케스트라의 연습이 한창이다. 바이올린, 플루트, 첼로, 콘트라베이스 등 악기를 고사리 손으로 꼭 쥔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친진난반하면서도 진지한 모습이다. 고창 꿈의 오케스트라가 창단한 지도 어느덧 2년여의 시간이 훌쩍 지났다.

어느새 아이들은 익숙한 자세로 악기를 다루는 모습이다. 지난 2017년 첫발을 내디딘 고창 꿈의 오케스트라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중심이 된 오케스트라이다. 지속적인 예술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 미래에 대한 희망과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창단됐다.

올해는 고창군 관내 12개 학교 65명이 함께하고 있다. 특히 상하, 신태인 등 고창읍내에서 30분 이상 떨어진 벽지 초등학교에서도 3~4학년 아이들이 빠지지 않고 찾아오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선 아이들을 연습을 위한 택시를 지원하고 있다.

고창 꿈의 오케스트라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두 차례에 걸쳐 연습을 진행한다. 월요일에는 오케스트라 및 파트연습을, 수요일에는 자체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반복되는 연습에 지칠 법도 하련만, 누구 하나 결석하는 아이들이 없다. 오히려 강사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이다.



고창 꿈의 오케스트라가 창단한지 2년이 지났다. 아이들이 고창문화원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연습 장소에서 만난 아이들은 "악기를 배우는 일이 무척이나 재미있다"며 "처음에는 손이 아프기도 했지만, 연습할수록 더욱 재미있다"고 입을 모았다. 오케스트라단에서 활동하며 전문 음악인의 꿈을 키우는 아이들도 있다. 콘트라베이스로 1년 이상 활동한 이진태(14·중 1)군은 "친구 따라 놀러와 1년 만에 하모니의 중심역할을 하는 목자란 저음의 매력에 빠져들었다"며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 콘트라베이스리스트로 이름을 떨치고 싶다"고 말했다. "고창 꿈의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고 있는 박병선 음악감독은 "처음에는 서로의 마음을 잘 몰라 힘들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그냥 귀엽고 예쁘다. 점점 연주곡의 난이도가 높아져도 곧잘 따라와 놀랐다"며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시골 아이들의 신선한 반향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전북농협, 가정의 달 모범 직원 3명 수상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2일 중앙본부 대강당 정례조회에서 가정의 달 모범 직원상 17명 중, 김수정 농협은행 장수군지부 계장보, 김연희 군산농협 상무, 김정순 백운농협 계장보 등 전북농협 직원 3명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북농협은 2019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孝 실천 등 가족·이웃사랑 실천에 헌신적으로 일해 온 임직원을 포상·격려하기 위해 "가정의 달 기념 모범직원"시상을 했다.

김수정 계장보는 농협은행 장수군지부에 근무하며, 주어진 업무에 대한 우수한 실적은 물론 항상 밝은 모습으로 고객과 동료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했으며, 특히 지방을 앓고 계신 어머니를 지극히 모서 노부모 병양·효부 직원으로 선정됐다.

김연희 상무는 군산농협에 근무하며, 치매 등 중증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친정 부모님, 시어머니 등을 지극 정성어린 효심으로 부양하고 있어 동 분야 모범 직원으로 선정됐다.

김정순 계장보는 사부모님을 모시고 가족을 사랑하고 지역민을 공경하며, 백운농협에 근무하고 있다.

특히, 여성방법대원, 무진장의용소방대원, 백운면체육회원 등의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여 지역사회 후원활동 모범 직원으로 선정됐다. /김영태 기자

## 남원경찰, 택시 정류장 등 방문 운전자 대상 홍보활동

남원경찰서는 지난 1일 버스운수업체, 택시 정류장 등을 방문해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에서는 음주운전, 졸음운전, 신호위반 등 주요 교통법규위반행위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동시에 교통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안전운전을 홍보했다.

특히, 방황지시등 일명 '깜빡이 켜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면서, 깜빡이는 필수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깜빡이를 켜지 않거나 켜자마자 바로 방향을 바꾸는 일로 교통사고로 이어짐을 설명하고, 방황지시등은 배려운전, 양보운전이라는 사실도 주지시켰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경찰, 부처님 오신 날 대비 범죄예방 방법순찰 강화

순창경찰서(서장 이서영) 순화파출소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관내 사찰 7개소에 대한 범죄예방을 진단하고, 사찰주변 방법순찰을 강화하는 등 특별방범활동에 들어갔다.



순화파출소는 1단계로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파출소장 및 사찰관리자와 합동으로 CCTV 사각지대 및 작동상태, 불전환과 현금보관장소 잠금장치 등 취약개소에 대해 범죄예방 진단 및 범죄예방 요령을 홍보하고,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소방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2단계인 이달 6일부터 12일까지는 사찰 주변을 탄력순찰 구역으로 지정, 주기적인 순찰을 강화해 발생할 수 있는 강력사건 등을 미연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군산시 명상 숲 조성사업 완료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시가 관내 군산남중, 군산남초, 당북초, 성산초에 학생과 함께 조성하는 명상 숲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명상 숲 조성사업은 학생 정서함양 및 친자연 학습공간 조성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녹색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도시에 고르게 분포된 학교를 '군산 미래의 숲'의 거점소로 활용할 예정이며, 조성 후 사후관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와 명상 숲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명상 숲 조성 학교관계자는 "학생들이 직접 나무심기를 체험하여 나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고 새로 조성된 명상 숲을 자연교육 현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진안군, 진안 IC 출구 요금소에서 단속반 합동 체납차량 단속

진안군은 2일 진안 IC 출구 요금소 앞에서 진안경찰서, 한국도로공사진안중부지사 등 9명의 단속반이 합동으로 체납차량 일체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에는 기관별 체납차량 식별을 위한 차량 영상인식시스템과 단말기(PDA), 순찰차 등의 장비가 활용됐다.

이번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체납차량과 불법 대포차량 등으로 안전교육과 단속방법에 대한 현장 설명 후 단속을 벌였다.

이날 단속에서 체납 1~2건인 경우 현장 징수와 납부안내를 유도하고, 3건 이상인 경우 변호판을 영치했다.

특히 타 지역에 등록된 차량으로 징수 촉탁된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변호판을 영치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국제화 역량 키우기 위한 노력 다할 것"

### 전주비전대, 개교 43주년 기념식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가 개교 43주년을 맞아 2일 기념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새전주교회 김복철 목사의 '여호와 너시'란 설교로 시작된 1부 예배는 비전대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축하 찬양과 더불어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다.

홍순직 총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교직원 장기 근속자 및 우수 교직원에 대한 시상, 우수학과 및 우수행정부서를 선정해 상을 수여했다. 2부 순서에서는 지역대학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용기를 주기 위한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열악한 경제 환경속에서도 (주)올리스 등 도내 기업과 단체를 비롯해

인스코비 등 출향인사들이 경영하는 기업 등에서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업의지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총 3500만원 장학금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전주시 완산갑 김광수 국회의원, 재경도 민회 장기철 수석 부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홍순직 총장은 기념사에서 "학령인구 감소, 경기 부진, 기업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청년취업난 등 급변하는 대학교육 환경으로 우리는 결코 쉽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에 직면해 있다"면서, "모든 교직원들의 화합과 대학의 고객인 학생, 학부모, 기업을 만족시키는 교육,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교육인프라를 조속히 확립하고 코딩, 빅데이터 등 ICT 기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과간, 전



공간 개방형, 융합형 교육 활성화, 양질의 해외취업과 교육프로그램 수출 등 국제화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문성 기자



## 호원대학교 항공관광학과, '하늘빛' 출범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항공관광학과가 1일 2등 시청각실에서 신입생들의 유니폼 착용식 및 학과 홍보단 '하늘빛'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항공관광학과는 유니폼을 처음 입는 신입생들이 학부에 소속감을 느끼고, 앞으로 학과생활을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응원하는 '두빛내래 윈수여시'를 가졌다.

유니폼 착용식이 끝난 후 올 해 새롭게 단장한 학회 소개 및 재학생으로 구성된 학과 홍보단 '하늘빛'의 출범식도 진행됐다.

항공관광학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하늘빛' 홍보단에게는 올해도 멋진 홍보를 기대하며 뱃지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희성 총장을 비롯해 서우석 부총장, 주요 보직교수 및 학과 교수들이 참석해 신입생들의 유니폼 착용식과 홍보단 출범식을 축하했다.

강희성 총장은 축사를 통해 "항공관광학과 학생들의 진심어린 미소에는 선한 인성까지 담겨있는 것 같다"며, "유니폼과 같은 제복은 동료와 함께하는 희생을 의미하기에 앞으로 동기 및 선배들과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상준 학과장은 "바쁜 학교생활 중에도 늘 미소를 잃지 않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어떤 일에든지 오늘처럼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 믿고,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정문성 기자

## 익산소방서, 소방안전 현장방문 실시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가 전통신장 자율소방안전관리 강화로 화재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익산소방서는 지난 1일 북부시장 등 전통신장을 방문해 소방안전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불철 화재예방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화재취약성 및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해 맞춤형 화재예방활동을 전개하고자 계획되었다. 이날 익산소방서는 전통신장 내 비상소화장치,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의 적정설치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추정 예산 전통신장 보이는 소화기 설치예산 450만원이 편성됨에 따라 현장의 화재 위험성 및 설치 위치의 적정성 등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다. /익산=장인현 기자

## 무진장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홍보 활동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119구급대원 폭행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무진장소방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주취자 대응강화와 폭행 재증정비 확보 등,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다각적 방안으로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폭행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제도 개선으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 ▲대응단계별 폭행관리체계 확립 ▲현장 확인 후 위험요인 인지 시 경찰 출동요청 ▲구급차 CCTV·캠 작동 상태 수시 확인 등으로 폭행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폭행 근절 대책 관련해, 폭행사고 운영전담팀을 구성하여 폭행피해 발생 시 즉시 팀을 구성하여 관련법령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며, 단독 폭행사고는 지방경찰청과 협조하여 소방특별경찰관이 직접 수사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단속 주취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조에 의거해 이송거절 대상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경찰관의 보호호지(폭력우려자) 대상이다. /장수=고판호 기자